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5. 3. 31.(월) 11:00 < 4.1.(화) 조간 > 배포 2025. 3. 31.(월)

관세파고 극복, 기술혁신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LG사이언스파크에서 「제14차 수출현장 지원단」 간담회 개최 -
- 가전,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업계소통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2일(수) 미 정부의 상호관세 발표가 예상되는 가운데 3월 31일(월)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하여 우리 수출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LG사이언스파크는 가전,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소재·부품 등 우리 수출 품목의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핵심기지이다.

간담회에 앞서 정인교 본부장은 CES 혁신상 수상 제품, 신기술이 적용된 시제품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해상도 향상, 디자인 개선 등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글로벌 선두를 달리고 있는 OLED TV가 무선화(Wireless)를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 된 것에 주목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통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개발, 혁신이 근본적인 답이며 시장이 변화하는 위기에도 기술력을 갖추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LG사이언스파크 정수헌 대표는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면 시장에서 판매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면서 "제품의 프리미엄화, 차별화 등을 통해 현재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아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세계 최고에 도전할 수 있도록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7조원을 산업·에너지 분야 R&D에 지원하고, 초격차 유지를 위한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상호관세 발표가 임박한 시점이니만큼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관세조치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건의하였으며, 정 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미 관세 조치에 대하여도 우리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지속 협의하고 있으며, 4월 2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글로벌사우스 시장을 선제적으로 개척하기 위해 코트라·무역보험공사·무역협회 14개 거점을 신설·강화하는 등 대체시장 발굴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현 상황을 타개해나갈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무역통상 현안 간담회’, ‘수출현장 지원단’ 등 가용 채널을 총동원하여 우리 수출업계가 당면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태우	(044-203-4020)
		담당자	서기관	권승기	(044-203-4023)
			사무관	서두원	(044-203-402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 고 **LG사이언스파크 수출현장 지원단 개요**

□ 방문 개요

○ **일 시** : ‘25. 3. 31(월), 14:00 ~ 15:30 (90분)

○ **장 소** : LG사이언스파크 마곡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10로 30

○ **주요 참석자**

-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장
- (**업체**) LG사이언스파크 정수헌 대표, LG전자 윤대식 전무, LG에너지솔루션 김우섭 전무, LG이노텍 조백수 상무, LG화학 정종은 상무, LG디스플레이 이한구 상무
- (**수출지원기관**) 코트라 이희상 부사장, 무역보험공사 정재용 부사장

○ **주요 내용** : 혁신 수출제품 점검 및 기업 애로사항 청취

□ 세부일정(안)

시간		주요 내용
14:00~15:30 (90′)	90′	**LG사이언스파크 마곡 방문**
	(45′)	**❶ 수출제품 점검**
	(45′)	**❷ 수출현장 지원단 간담회** ▸ 업종별 산업 동향·전망 ▸ 자유 토론